

모리나가 타이치로 기념비의 설명문

이마리의 위인, 모리나가 타이치로 1865년(케이오 1년)~1937년(쇼와 12년)

모리나가 제과와 모리나가 유업의 창업자. 이마리 출신. 생가는 마츠시마쵸로, 가업은 도기와 어류 도매업이었다. 부친의 사망 후 가세는 기울어 어린 타이치로는 모친의 친정에서 고생하며 자랐다. 이후, 숙부인 야마사키 분자에몬으로부터 상업의 기초를 배워 곤약 행상을 시작으로, 그 재능을 성장시킨 타이치로는 성인이 되어 미국으로 넘어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서양과자의 제조법을 습득하기에 이른다. 귀국 후, 도쿄에서 모리나가 서양과자 제조소를 개설, 일본인에게는 익숙하지 않던 카라멜이나 초콜릿 등의 서양과자를 제조·보급하는데 노력하여, 이후 제과왕으로 불릴 정도로 일본 과자업계에 공헌하였다. 또한 지역 축산 진흥을 바라며, 자신의 재산을 기부함과 더불어, 오오즈보쵸에 모리나가 제과 제 8 공장(현 모리나가 유업 이마리 공장)을 설립 하는 등, 이마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화상소개문

모리나가 제과 제 8 공장 전경 1922년(타이쇼 11년)당시 [모리나가 제과 주식회사 제공]